

# 가상공간서 게임·앱 여행...시민들 첨단 디지털 체험

광주·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 콘텐츠 체험행사 풍성  
광주, GICON WEEK서 AI 트렌드 공유·전시 체험부스 운영  
전남, 메타버스 체험교육 등 게임 통한 쉽고 재밌는 디지털 교육

광주·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다양한 문화콘텐츠, 미래첨단기술을 지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 기술력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주요 성과를 지역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개념의 기술력을 문화체험 콘텐츠와 연계해 남녀노소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2024 GICON WEEK'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GICON, AI로 광주의 일상을 혁신하다'를 주제로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광주시민과 참여 기업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여했다. 우선 19일에는 '광주실감콘텐츠큐브

(GCC)사관학교 수료식'이 열렸다. GCC사관학교는 광주지역 문화콘텐츠 인재육성 플랫폼으로, 산·학·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인재와 기업을 연결하는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수료식에는 152명이 참석했고, 집매칭 행사,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집매칭 행사에서는 4개 기업과 39명이 상담을 진행했고, 채용설명회는 3개 기업이 1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하기도 했다. 이어진 성과전시회에서는 AI 융복합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전문 컨퍼런스와 더불어, 33개의 작품이 전시·체험 부스를 통해 공개됐다. 20일에는 '광주디지털혁신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는 광주시민과 기업 관계자 128명이 참석, AI와 디지털 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25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 VX 스튜디오에서 지역 아동들이 확장현실(XR) 체험콘텐츠에 참여하고 있다. (GICON 제공)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GCC VX스튜디오 체험행사', 'AI포토부스', 'AI융합미디어아트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민들이 AI를 활용한 일상생활

활을 보낼 수 있는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JOIA)도 지난 23일 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가족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체험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초등학교생 자녀와 부모가 함께 디지털 기술에 대

한 이해를 쌓고, 메타버스 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순천에 위치한 전남콘텐츠코리아랩(16일),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23일)에서 추진됐다. 교육에는 총 40여 명의 가족들이 참여해 인기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와 디토랜드에 접속해 사용 방법을 익혔고, 이후에는 자녀와 부모가 함께 가상 공간을 체험하며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가족들은 로블록스를 활용해 아이와 어른 모두 게임에 참가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활동을 통해 디지털 소통 능력을 높이며 즐거움을 더했다. 또 디토랜드 앱에서 다양한 전남 지역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에게 여행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인용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체험 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세대 간 격차 없이 누구나 디지털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의 저변이 지역 사회에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식품명인 손맛 맛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두레촌'에서 고객들이 대한민국 식품명인 32호 강봉석 명인의 다양한 조식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22일 광주점 지하1층 푸드메뉴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들의 전통식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매장이 신규 오픈했다. 식품명인 37호 권기욱 명인의 조선왕실 장맛을 만나볼 수 있는 '상춘식품', 수산식품명인 5호 김정배 명인의 '김정배젓갈' 등 다양한 식품명인들의 상품을 마련했다. 해당 매장에서는 신규 오픈 기념으로 오는 12월 1일까지 '김정배 젓갈' 15% 할인, '상춘식품'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두레촌'은 12월 8일까지 1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전남TP, 지역특화 프로젝트 성과발표회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센터가 지난 22일까지 이틀간 목포에서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전남도와 함께 2024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교류회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레전드50+'는 중소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대표 정책 중 하나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역 현안 해결 및 미래 먹거리를 끝까지 지원해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수출 및 매출 비중을 50% 이상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담고 있

다. 전남의 '레전드50+ 1.0'에는 이차전지 소재·부품 산업이 선정됐으며, 2024년부터 3년간 이차전지 원료, 소재, 부품, 리사이클 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들은 혁신바우처, 수출바우처, 정책자금(융자), 창업중심대학, 스마트공장, 지역혁신산업육성사업 등 중소기업청(중기부)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 사업화 추진 및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2024년에는 중기부 지원사업에 29개사 40개 과제 27억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지자체 지원사업에 6개사 3억9000만원이 지원됐다. 이날 기술교류회 및 성과발표회는 2025년 전남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및 성과계획 공유를 시작으로, 전문가 초청 산업·기술동향 세미나, 2024년 수혜기업 사업추진 현황 및 실적·성과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전남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과제들의 성과가 지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푸드테크 기술 공유...aT, 코엑스 푸드위크 성료

관람객 6만 2000명 방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3일까지 4일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코엑스와 함께 개최한 '농식품부×코엑스 푸드위크 2024'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 행사는 농식품부와 aT가 매년 개최하는 '대한민국식품대전'을 '코엑스 푸드위크'와 통합 개최했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참가기업들의 성과 제고 등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31개국 1054개사가 참여하고, 1846개 부스, 관람객 6만 20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식품 정책홍보관에서는 식품산업의 발전사와 푸드테크를 통해 식량 관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를 조망하고, 관련 기업들의 부스 참여와 농업과 푸드테크의 상생 사례, 가루쌀 홍보관 등을 운영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 민·관 협력을 통해 확대된 행사 규모로 다양한 연계 행사도 동시 진행됐다. 연계 행사로는 ▲2025 식품의식산업 전망 ▲K-Food+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KF) ▲글로벌 푸드테크 기술 표준화 심포지엄 ▲국가식품 클러스터 국제콘퍼런스 ▲월드푸드테크 콘퍼런스 등 식품 관련 행사가 열렸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농어촌공사, 어도 공모전 시상...발전 방향 모색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2일 해양수산부와 함께 충남대 국제문화회관에서 '제7회 어도사진·숏폼 공모전 시상식'과 '2024년 내수면 어도관리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어도는 물고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 통로로,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고 연결성을 강화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시상식과 토론회 등은 어도의 환경적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서는 총 24점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희철 씨의 '봄의 어도'가 대상 수상했다. 해당 작품은 어도와 주변의 봄꽃,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균형있게 잘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사진 부문 최우수상에는 전동희 씨의 '여주보의 여

름'과 이항구 씨의 '은어의 길', 숏폼 부문 최우수상에는 조기정 씨의 '어도의 하루'가 선정됐다. 이어 토론회에는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 '어도 유지관리를 위한 기관 협력'을 주제로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34.34 (+33.10)
↑ 코스닥	696.83 (+19.82)
↓ 금리 (국고채 3년)	2.773 (-0.043)
↑ 환율 (USD)	1402.00 (+0.20)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